

##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및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

의안 번호	3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7. 23.

발의자 : 이경식 의원  
외 4인

### 1. 제안이유

- 대구의 경제적 위기극복과 부족한 산업용지 충족을 위한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있어, 낙동강 수질오염 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또한, 구지지방산업단지가 36%의 공정에서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으므로, 이를 관계기관에 촉구·건의함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.

### 2. 주요건의내용

- 대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부산·경남 지역민들의 극단적인 반대로 지연되고 있어, 산업용지 부족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, 또한, 구지지방산업단지도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주가 변경되어 36%의 공정으로 방치되고 있어, 지역 및 국가경제에 큰 손실은 물론 지역민의 피해의식이 고조되고 있음.
- 따라서, 경제적논리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고,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충실히 추진되도록 촉구·건의함.

붙임 : 1.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건의안 1부.

2. 구지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 1부. 끝.

## 위천국가산업단지조기지정촉구건의안

대구는 과거 경제개발시기에 지역의 특화된 섬유산업으로 국가경제 부흥을 주도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선진경제에 진입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.

그러나 1990년대 이후 섬유일변도의 산업구조와 대기업의 역외 이전, 국가산업단지의 부재 및 산업용지의 부족으로 지역경제가 급속도로 침체되어 3대 도시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지역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부족한 산업용지 충족을 위해 본 군이 대구 광역시에 편입된 해인 1995년에 대구시는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계획하였으나 낙동강 수질오염을 우려한 부산·경남 지역민들의 극단적인 반대로 현재까지 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지연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달성군민은 각종 행위제한 및 건축제한 등의 심각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으며, 정신적 피해의식은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그러나, 최근 포항산업연구소 및 미국 알콘연구소의 용역조사 등 각종 연구결과에 의하면 위천산업단지가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, 위천단지가 지정되더라도 공장이 입주하는 데에는 최소한 5년이 소요되므로 낙동강 수질개선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또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고려한다면 국토 중남부의 경제적 핵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·경북의 미래를 위하여 위천산업단지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정되어야 할 것입니다.

국가의 합리적인 정책이 지역의 불합리한 이기주의에 의해 지연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.

위천산업단지 지정은 객관적인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, 지역간의 감정이나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

정부 및 관계당국은 대구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임을 직시하여, 대구경제 희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위천산업단지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기를 건의합니다.

1999년 7월 24일

대구광역시달성군의회

## 구지 지방산업단지개발촉구건의안

대구는 내륙교통의 요충지로 산업입지의 최적의 여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섬유 일변도의 산업구조와 공장용지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최근들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1995년 3월 본 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대구시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업부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, 대구시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섬유 중심의 지역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내에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성군 구지면 중심부 약 82만평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.

쌍용자동차(주)는 1992년에 구지 지방산업단지를 매입하고 3년 후인 1995년 11월에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약 36%의 공정이 진행되던 중 경영악화로 쌍용자동차(주)를 1998년 1월에 (주)대우에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.

(주)대우의 자동차산업특화 계획으로 구지공단의 사업재개가 기대되었으나 현재까지 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만을 변경하였을 뿐 구체적인 사업 시행은 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.

82만여평의 광활한 토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, 지역 개발을 기대하고 있었던 인근 주민들과 달성군민의 재산상의 불이익 및 정신적 피해의식은 점차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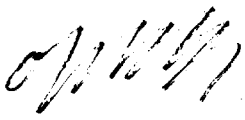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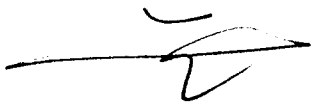




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구지공단의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고 자동차 관련 사업의 개발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체인 관계당국과 (주)대우는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는 거국적인 시각에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대구시의 산업용지 수요 충족을 해결할 수 있는 구지공단의 사업을 계획대로 빠른 시일내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건의합니다.

1999년 7월 24일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

# 서명날인서

의원명	서명	날인 (등록된 인감도장 사용)
이경익		
김판조		
도기태	도기태	
이정재		
서병호	